진시영 작가-'빛의 정원' '백설공주' '무돌 1187', 이이남 작가-연극 '아버지' 참여

미디어 아트, 무대로의 초대

지역 예술인들 콜라보레이션 활발 '윈윈 효과'

진시영 작가와 박경숙 단장의 그린 발레단이 함께 작업한 '백설공주'.

지난달 광산문예회관에서 열린 그린 발레단의 '백설공주'는 친숙한 동화를 발레로 풀어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아름다운 음악, 발레리나들의 동작과 함께 왕비가 사는 성(城), 난장이들의 숲, 폭풍우치는 모습, 마법의 거울에 백설공주의 얼굴이 비치는 모습 등을 표현한 영상도 눈에 띄었다.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씨가 함께 참여해 만들어낸 장면들이다.

최근 들어 지역 예술인들의 협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미디어 아트와 공연 예술 분야의 콜라보레이션은 각각의 장르에 또 다른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서로의 장르를 존중하며, 공부하는 과정을 거쳐 '윈윈 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개인 작업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들이 장르간 융복합을 통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협업에 가장 적극적인 이는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씨다. 진씨는 지난해 그린발레단(단장 박경숙 광주여대 교수)의 '빛의 정원'으로 첫 협업한 데 이어 올해는 '백설공주'를 작업했다. 또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과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의 '무돌 1187'에도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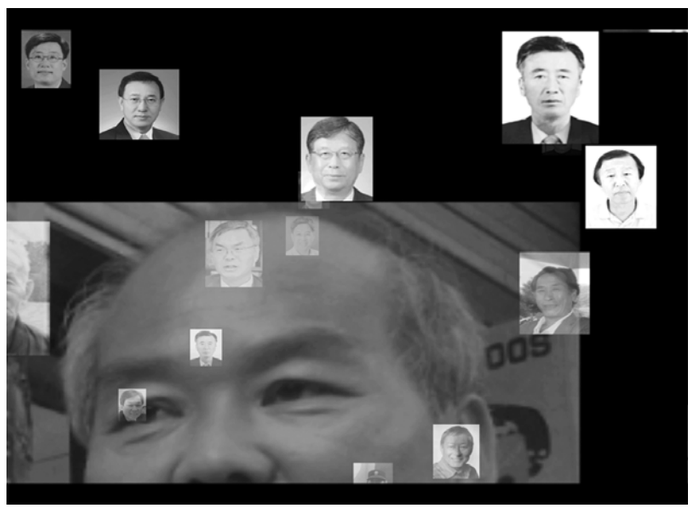
'빛의 정원'은 지역에서 처음 시도된 발레와 미디어 아트의 결합이었다. 다양한 세트를 활용할 수 없는 극장 구조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됐었다. 스케치를 보여주고, 안무를 살펴보고, 리허설 과정을 지켜보며 박 단장과 진 작가는 작품에 대해 논의하고 조율 과정을 거쳤다.

박경숙 단장은 "열악한 공연장 환경에서는 기존 스타일의 세트로는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영상과의 접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무돌 1187'은 무등산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무등산에 관심이 많았던 진 작가는 무용단의 제안에 적극 호응했고, 아버지 진양욱 작가의 무등산 작품 등을 활용해 무대를 만들어냈다.

진씨와 작업한 김미숙 단장은 "기존 작품에서 주로 사용하던 단순한 영상작업에서 벗어나 진씨의 현대적인 감각의 작품이 어우러져 색다른 느낌을 줬고, 관객들의 반응도 좋았다"고 말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프로젝트와 국악그룹 아이리스 공연 등에 참여했던 이이남씨는 올해 박윤모씨의 모노드라마 '아버지'에서 미디어 아트를 선보였다.



박윤모 모노 드라마 '아버지'에 삽입된 이이남 작가의 작품.

'아버지'는 회갑을 맞은 주인공이 지나온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 이야기다.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흐름을 죽 따라가는 작품이라, 이 작가는 그 흐름에 맞춰 작품을 배치했다.

아버지가 살던 집을 떠올리며 회상에 젖는 느낌을 담아 연출한 '아버지가 살던 집', 당시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어느새 늙어버린 오늘의 아버지 얼굴들이 스치며 다양한 감정을 담은 '아버지의 얼굴' 등을 선보였고 사계절의 변화를 담은 기존 작품 '인왕제색도'도 첨가됐다.

이이남 작가 역시 "연극 작품에는 처음 참여했는데 미처 몰랐던 타 장르에 대해 알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지는 협업의 특성 상 개성 강한 예술가들간의 '조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전공 분야를 존중하며 공부하는 계기가 된다.

진작가는 관객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접한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 미술가들의 경우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갤러리에서 관람자를 만나지만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반면 공연의 경우 단발 행사로 끝나기는 하지만 관객들의 반응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설명이다.

작품 완성도 면이나 제작 여건 면에서는 아쉬운 점도 많다. 우선 공연장의 열악한 환경. 미디어를 쏘는 것도 빛이고, 무대 위의 무용수 역시 조명을 받아야 하는 터라 빛과 빛이 부딪쳐 적절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 조명기구의 성능도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아쉽다.

그밖에 각각의 장르가 너무 '제 목소리'만 고집할 경우 오히려 작품에 녹아들지 못하고 따로 국밥이 되는 장면이 있기도 했다.

진시영 작가는 "최근의 협업 사례를 바탕으로 짜여진 작품이 아니라, 실시간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공간 연출을 통해 색다른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기억의 향수'

22일까지 남도작가 12인 특별전

강운 작 '공기와 꿈'

KBC광주방송(대표이사 정일윤)과 태성문화재단(이사장 우현희)은 2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노스텔지아(Nostalgia)-남도작가 12인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강연균·강운·김대원·김영삼·서기문·손봉채·손장섭·우제길·이이남·한희원·황영성·황재영 등 모두 12명의 광주·전남 출신 작가가 참여한다. 전시기획은 장경화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사가 맡았다.

작품에는 작가들의 예술적 정서나 상상력의 원천이 된 그들의 고향,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과거에 대한 그리움 등이 담겼다.

KBC광주방송은 1년 동안 다큐 '화폭에 담은 내 사랑 남도'를 통해 참여작가들의 예술세계와 고향에 대한 생각을 소개하기도 했다. KBC광주방송은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의 대표작품 1점씩을 모아 2014년 달력 3000부를 제작했다. 문의 062-613-540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몽환의 시간'

은암미술관 23일까지 조정태 초대전

'몸빼'

은암미술관은 오는 23일까지 작가이자 기획자인 조정태씨를 초대해 '몽환의 시간(夢幻의 時間)'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일상과 현실발언, 자연 풍경, 자화상 시리즈, 기억과 흔적에 대한 환기를 다루는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조씨는 고인(故人)이 된 할머니의 영혼이 빠진 '몸빼', 권위주의와 군대문화의 상징이었던 '교련복', 봄비조차 칙칙하고 음울한 분위기가 돼버린 '봄-황사', 쓸쓸한 흔적과 소멸의 정점이 되는 듯한 '겨울-나목'을 대상화시켜 들여다본다.

'몽환의 방'과 '백산(白山)', '군상(群像)' 등은 현실과 역사에 대한 인식이자 기억과 흔적에 대한 환기를 위한 작품들이다. '몽환의 방'은 극단적인 좌우 이념 논리와 지역 비하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일베' 현상에 대한 작가의 일성이다.

조씨는 현재 (사)광주민족미술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문화활동가, 전시기획자, 공공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31-5299.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인문학교육의 현황과 방향'

들불학당, 내일 토론회

지역의 인문학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들불학당은 18일(오후 2시~4시30분) 학동 들불학당 교육실(광주은행 5층)에서 '광주지역 인문학교육의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지역 인문학 교육 단체 및 활동가들이 참여해 그동안 진행되었던 인문학 교육의 성과 및 한계를 공유하고 다양한 단체들과의 소통과 협력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1부는 전남대 청소년 철학교실, 무등지성, 기아차노조 광주지부의 사례 발표가 이어지고 2부에서는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들불학당사업단은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부설기관으로 2013년 4월 10일 창립, 광주지역에 사회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문의 062-228-0528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달을 품은 슈퍼맨' 29일까지 동산아트홀

작품을 보고 나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서로 위로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잔잔하게 펼쳐지는 '달을 품은 슈퍼맨'은 위로가 되는 뮤지컬이다.

유·스퀘어문화관이 진행하는 '굿 공연' 12번째 작품 '달을 품은 슈퍼맨'이 오는 29일까지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작품의 배경은 서울의 달동네.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는 엄마는 정신 지체 큰 아들 우현, 백수 도현과 함께 억척스런 삶을 살아간다. 여기에 가족처럼 지내는 일본인 도요타, 배우 지망생 안경, 보성에서 상경해 주경야독하며 성공을 꿈꾸는 써니가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

조금은 예측 가능한 스토리와 연출이지만 웃음과 감동이 적절하게 어울려 유쾌하게 관람할 수 있다.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하는 배우들의 연기가 탄탄한 반면 일부 출연자의 노래 실력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극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배우로 활동중인 추정화씨가 극본과 연출을, '라디오 스타' 등에 참여했던 허수현씨가 음악을 맡았다. 티켓 가격 3만원. 커피숍 '케냐' 영수증 제시 시 30%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다.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